

김장열의 '요것만'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추석 연휴지만 '말'이 많겠다-미 대선 첫 TV 토론, 마이크론 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 인사 연설 줄줄이



<코로나 확산-둔화-진정-재확산, '지겨워 죽겠네..'라는 정도 시기가 분기점인데...>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그것은 덜 중요하다. 코로나는 어차피 안전한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는 확산-둔화-진정-재확산-둔화-진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Why? 인간의 본성상 틈만 나면/기회만 되면/ 명분만 주어지면 욕구 충족시키야 한다, 본인만 위험하지 않다면 (건강측면/ 경제측면). 그래서 건강측면은 기다려야 (백신)하고 경제측면은 부양정책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부양정책으로 제대로 경제 지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훨씬 (far beyond) 중요한 것은 선거 (지지자 응집)와 주식시장이다 (코로나 Blessing 중심으로, 미국 S&P 500 상장주식은 미국 20인 이상 기업의 1%도 안되고 상장 시총의 20% 이상은 FAANG이다, 한국도 삼성/LG전자/NAVER/LG화학 등 대형주는 코로나 부정적 영향 단기적으로 별로 없고 오히려 수혜, 일반 경제와 괴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미 대선 첫 TV토론: 애매하게 끝나면 주식 시장 모멘텀 어려워>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조정 받고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미 대선전 까지 공화당-민주당의 새로운 부양 법안 이견이 바로 좁혀져서 신속히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신임 대법관 조기 임명 문제를 두고 양측이 강하게 충돌 하면서 대선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더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토론이 (미 현지 시간 9월 29일) 초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토론 10월 15일, 3차/마지막 토론 10월 22일).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이전보다 좁혀진 상황이다. 어느 한 후보가 토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 않으면 (백중세 또는 애매한 승부로 끝나면)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더 부각될 것이고 새 부양 법안 합의도 대선 이후로 미루어 질 것이다. 물론,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면 (지금 상태 유지가 아니고) 어쩔 수없이 양측이 법안 합의는 일단 하고 볼 수도 있긴 하다.

<마이크론 분기 실적: (9~11월) 가이드언스에 더 주목>

미국의 Micron Technology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3위업체)가 같은 날 (미 현지 시간 29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6~8월 기간이기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였던 기간이라 기존 가이드언스에 부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현물 가격도 8월 마지막주까지 지속 하락후 5개월만에 8월 25일 첫 반등한 것이어서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컨센서스 예상은 매출 59억달러, EPS \$0.98 EPS 이고 회사측 4분기 당초 가이드언스는 매출 57.5억~62.5억달러, GP 마진 34~37%. 따라서, 1분기 (9~11월) 가이드언스가 어떻게 제시될지가 대선 첫 TV토론 다음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이번주는 미국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28일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29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뉴욕 연은 총재, 30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10월 1일 윌리엄스 총재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등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한다. 무슨 의미있는 코멘트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말'들은 많을 한주이다.

<주요 지표>

9/29 (화)

미국 대선 후보 1 차 TV 토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분기 (6~8월) 실적 발표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9월) 컨센서스 90.0 이전치 84.8

9/30 (수)

9월 중국 제조업 PMI 컨센서스 51.5 이전치 51.0
 9월 중국 서비스업 PMI 컨센서스 54.9 이전치 55.2
 9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컨센서스 53.3 이전치 53.1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QoQ 컨센서스 -31.6% 이전치 -5.0%
 9월 미국 ADP 취업자 수 컨센서스 650 이전치 428

10/1 (목)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천명) 컨센서스 840 이전치 860
 9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컨센서스 55.9 이전치 56.0
 8월 미국 PCE 근원 디플레이터 (전월 대비) 컨센서스 0.3% 이전치 0.3%
 8월 미국 개인소득 (전월 대비) 컨센서스 -2.1% 이전치 0.4%
 8월 미국 개인소비지출 (전월 대비) 컨센서스 0.7% 이전치 1.9%

10/2 (금)

9월 미국 실업률 컨센서스 8.2% 이전치 8.4%
 9월 미국 비농업고용자 수 (천명) 컨센서스 865 이전치 1,371
 9월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 대비) 컨센서스 0.2% 이전치 0.4%
 9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컨센서스 79.0 이전치 78.9
 8월 미국 공장수주 (전월대비) 컨센서스 1.0% 이전치 6.4%
 8월 미국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컨센서스 1.3% 이전치 11.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연락처: 02-3779-3513 / Email: jay.kim1007@gmail.com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53.2%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Hold (보유)	-15% ~+15%	0.6%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0.0%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46.2%	
		합계		100.0%	